

清華簡 <傳說之命> 주해

이 연 주*, 張崇禮**

<목 차>

1. 머리말
2. 清華簡 1~4차 연구 성과 발표내용과 그 의미
3. 清華簡 <傳說之命>의 내용과 古文獻 연구에의 시사점
4. 清華簡 <傳說之命> 역주
 - 4.1 <傳說之命>上
 - 4.2 <傳說之命>中
 - 4.3 <傳說之命>下
5. 맺음말

1. 머리말

2010년 말 清華大學藏戰國竹簡(이하 清華簡이라 칭함) 1차 연구 성과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2008년 清華大學이 기증받아 2년여 기간에 걸친 보존 처리와 복원 작업 등을 거쳐 공개된 清華簡은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 戰國시대 경서들이 그 주를 이룬다.¹⁾ 이 출토문헌의 발견은 선진시기 역사, 문헌

*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 中國 北華大學 中文系 教授

1) 清華簡은 호북성 또는 호남성에서 불법 도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죽간으로, 청화대의 한 동문이 이를 획득해 2008년 청화대에 기증하였다. 이전 발견과의 유사성에 비추어 당시 楚지역에 속한 전국시대 중후기(480~22 B.C.)의 무덤에서 도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사성탄소 측정 결과 305±30B.C. 시기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wikipedia 참조 - http://en.wikipedia.org/wiki/Tsinghua_Bamboo_Slips)

및 경서 연구, 문자학, 사상사 연구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학계를 흥분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이후 淸華簡은 매년 한 차례씩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현재 4차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先秦시기《尙書》類의 문헌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써 당시의 《尙書》類 문헌의 존재 상황을 추측해볼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송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古文尙書》의 僞作 주장이 옳았음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또한 당시의 역사와 정치, 사회 상황을 알게 하고, 고대 문자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淸華簡 중 2012년 발표된 3차 연구 성과에 포함된 《尙書》類 문헌인 <傳說之命>에 대해 그 내용과 古文獻 연구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주해하였다.

2. 淸華簡 1~4차 연구 성과 발표내용과 그 의미

淸華簡은 약 2,500개의 죽간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0개 이상의 문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2010년 1차 연구 성과가 발표된 후 현재 4차 연구 성과까지 발표되었다.

(1) 1차 연구 성과 발표(2010.12): 淸華簡 1차 연구 성과(《淸華大學藏戰國竹簡(壹)》)는 <尹至>, <尹誥(咸有一德)³⁾>, <程寤>, <保訓>, <耆夜>, <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金縢)⁴⁾>, <皇門>, <祭公>, <楚居> 등 9편을 포함하고 있다.

(2) 2차 연구 성과 발표(2012.2): 淸華簡 2차 연구 성과(《淸華大學藏戰國竹簡(貳)》)는 <系年>이라고 하는 연대기 형식의 저작으로, 이는 西周 초부터 전국시대 전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2) News of Tsinghua University(2011.3.4.)

3) 淸華簡 <尹誥>는 《尙書·咸有一德》의 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4) 淸華簡 <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는 《尙書·金縢》과 동일한 내용이다.

(3) 3차 연구 성과 발표(2013.1): 淸華簡 3차 연구 성과(《淸華大學藏戰國竹簡(參)》)은 모두 6종 8篇으로, <傳說之命(說命)⁵⁾> 3篇, <周公之琴舞>, <芮良夫咎>, <良臣>, <祝辭>, <赤鵠之集湯之屋> 등이다.

(4) 4차 연구 성과 발표(2014.1): 淸華簡 4차 연구 성과(《淸華大學藏戰國竹簡(肆)》)는 <算表>라고 하는 썬표다. 이는 선진시대에 사용되던 1/2에서 90까지의 십진법 곱셈표로 세계에서 가장 이른 관련 썬표로 추정되고 있다.⁶⁾

淸華簡의 발견은 선진시기 역사, 문헌 및 경서 연구, 문자학, 사상사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특히 戰國 시기의 문헌 상황과 형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淸華簡에 포함된 《尙書》류의 기록을 보면 《尙書》類의 문헌이 선진시기에는 상당히 많았음을 알게 되고 더불어 이들 문헌이 경서로 편찬, 정리되기 이전에 개별 문헌 형태로 오랜 기간 존재 및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된 淸華簡문헌들에는 현존 《尙書》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것, 《尙書》에 僞作이 실린 것, 《逸周書》⁷⁾에 포함되어 전해오던 것, 《逸周書》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실되어 전해오지 않는 것, 과거 그 존재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尙書》류 문헌, 그리고 기타 문헌들이 있다. 1~4차 연구결과 발표에 포함된 淸華簡 문헌을 이러한 구분에 따라 나뉘보면 다음과 같다.

- 《尙書》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문헌: <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
- 《尙書》에 僞作이 실린 문헌: <尹誥>, <傳說之命>
- 《逸周書》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문헌: <皇門>, <祭公之命>, <程寤>
- 새로 발견된 《尙書》류 문헌: <尹至>, <保訓>, <耆夜>, <楚居>, <赤鵠之集湯之屋>
- 기타 새로 발견된 문헌: <周公之琴舞>, <芮良夫咎>, <良臣>, <祝辭>

5) 淸華簡 <傳說之命>은 《尙書·說命》의 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6) wikipedia 참고(http://en.wikipedia.org/wiki/Tsinghua_Bamboo_Slips)

7) 《逸周書》는 《周書》 또는 《周史記》라고 하며, 전해지는 바로는 유가가 《尙書》를 정리하고 산일한 부분이라고 한다.(諸海星, 1999)

<系年>, <筮法>, <算表>8) 등

淸華簡에는 다수의 《尙書》 및 유사류의 문헌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 문헌들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가 하면, 현존 《尙書》 또는 《逸周書》의 내용과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이나 이들의 오류를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당시의 사상이나 역사, 지리와 문화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耆夜>의 경우, 《尙書》의 내용과 달리 周의 黎 공격이 문왕 때가 아닌 무왕 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9) 이러한 차이는 현존 《尙書》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尹誥>, <傳說之命> 외에 <皇門>, <祭公> 등 문헌들에서도 발견된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尙書》류 문헌인 <尹至>의 경우는 伊尹이 商湯과 만나 나눈 대화로 내용에 있어 <尹誥>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夏代 말기의 정치 상황과 사회 상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로써 先秦시기 《尙書》類의 문헌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밖에 후계자 무왕에게 한 문왕의 유언을 담고 있는 <保訓>의 경우 舜과 商의 고대 조상인 “上甲微”에 대한 2개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으며, ‘中’의 개념이 나와 사상사 연구 측면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耆夜>의 경우, 周의 黎 공격 후 있었던 ‘飲至’의식과 이때 주공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은 頌이 수록되어 있다.10) <楚居>의 경우, 周의 역사 지리 및 의식 연구에 많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系年>의 경우, 周初에서 전국 초기 楚 悼王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준다. <周公之琴舞>, <芮良夫慙>을 통해서서는 詩歌와 樂,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으며,11)

8) <周公之琴舞>, <芮良夫慙>, <良臣>, <祝辭>는 《詩經》류, <系年>은 《春秋》류, <筮法>은 《周易》류 문헌이며, <算表>는 선포다.

9) 《尙書·商書·西伯戡黎》에 西伯(文王)이 黎를 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淸華簡 <耆夜>에는 “武王八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0) 이 주공의 頌은 《詩經·唐風》에 있는 <蟋蟀>편과 연관이 있다.

11) <周公之琴舞>은 周公과 周成왕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귀중한 樂詩이다. 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大武>의 樂章과 서로 비교되며, 그 내용도 周公還政, 成王嗣位와 관련이 있다. 이는 佚詩뿐만 아니라 佚樂에 있어서도 중대한 발견이다. <芮良夫慙>은 周厲王 때의 大臣 芮良夫가 지은 전체가 180여구에 달하는 장편 시가이며, 西周 후기 정치적 부패와 외환의 심각한 국면을 반영하고 있어 이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淸華大學新聞網, 淸華大學藏戰國竹簡(參)成果發表,

<良臣>은 과거 알려지지 않았던 다수의 역사적 인물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清華簡에는 <祝辭>, <赤鵠之集湯之屋>, <算表> 등의 문헌이 포함되어 있는데, <祝辭>, <赤鵠之集湯之屋>은 고대 무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상사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算表>는 秦 이전 시기에 측량이나 곡물작황 및 세금 산출 등에 십진법 셈표가 관리들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¹²⁾

한편, 清華簡의 발견은 송대 이후 오랜 기간 학자들의 연구와 논쟁을 거쳐 僞書로 알려졌던 《古文尙書》가 僞書임을¹³⁾ 실제로 입증하고 있다. 이는 戰國시대에 기록된 清華簡의 <尹誥>, <傳說之命>이 세상에 나오고, 그 내용이 현존 《尙書》의 내용과 크게 다른데 따른 것으로 학술사 연구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일부 설득력 있는 논거에도 불구하고 清華簡에 포함된 <尹誥>, <傳說之命>이 최초 《尙書》가 편찬될 때 수록되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또는 戰國시대의 유일한 판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중국 古文獻 연구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며, 따라서 별도로 논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清華簡 <尹誥>, <傳說之命>은 이들이 전국시대의 문헌이라는 점과 함께, <尹誥>의 내용이 《史記·殷本紀》에 당왕이 夏桀을 정벌할 때의 일이라고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점,¹⁴⁾ <傳說之命>이 제목과 부합되게 고종 武丁이 주체가 되어 기술되어 있고,¹⁵⁾ 선진문헌에 인용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점¹⁶⁾ 등으로 미루어 이들이 《尙書》의 진본에 가까울 것으

2013.1.7)

- 12) 清華大學新聞網에 게재된 《清華大學藏戰國竹簡》成果發布會(壹), (貳), (參), (肆)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정리함.
- 13) 《古文尙書》가 僞書임은 송대 이후 오랜 논란을 거쳐 청대에 이르러 확실히 판명되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김학주(2012) 해제와 서주영(2007)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14) 《史記·殷本紀》에서 “<尹誥>는 상당(商湯)이 하갈(夏桀)을 정벌할 때의 일”이라고 했는데, 清華簡 <尹誥>에는 하갈을 정벌하고자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반면, 현존 《尙書·咸有一德》에는 이를 당왕이 죽은 후에 이윤이 당왕의 아들 태갑에게 하는 훈계라고 하였다. (李學勤(2011) p.132, 최남규(2012)에서 재인용)
- 15) 《尙書·說命》은 傳說이 임금에게 조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16) 선진문헌에서 인용한 <說命>의 내용이 清華簡 <傳說之命>에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李學勤(2012:8)을 참조하여 정리함)
 ①<國語·楚語上>에서 인용한 “若金, 用汝作礪; 若津水, 用汝作舟; 若天旱, 用汝作霖

로 추정되고 있다.¹⁷⁾

이밖에도 淸華簡은 楚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대 문자, 특히 楚문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한 최근의 고문자 연구에 따르면 전국시대 지역별 문자가 상당히 달랐는데, 이번 출토 문헌들이 楚문자로 기록되어 있어 戰國시대 楚문자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 淸華簡 <傳說之命>의 내용과 古文獻 연구에의 시사점

淸華簡 <傳說之命>은 문장의 맨 끝, 죽간의 뒷면에 <傳說之命>이라는 제목이 있어 이것이 바로 고문헌에 기록된 <說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傳說之命>은 商王 武丁과 그의 신하 傅說에 대한 고사로, 현존 《尚書·說命·序》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종이 傅說을 얻는 꿈을 꾸고, 신하들로 하여금 그를 찾도록 해 傅巖이라는 곳에서 그를 발견한 이야기와 이때 武丁이 傅說에게 내리는 命이 그 내용이다. 현존 《尚書·說命》과 淸華簡 <傳說之命>은 모두 3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尚書·說命》은 중편과 하편의 내용이 무정(高宗)이 傅說에게 내리는 命이 아닌 재상이 된 傅說이 임금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배움에 대해 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 반면, 淸華簡 <傳說之命> 3편을 보면, 상편은 殷王 武丁의 꿈과 傅說을 찾기가 지의 과정, 그리고 傅說이 武丁의 命으로 失仲을 토벌하고 그 후 殷으로 와서 공으로 임명되기까지의 이야기이며, 중편은 傅說의 殷 도착과 武丁과의 상봉,

雨。啓乃心，沃朕心。若藥不瞑眩，厥疾不瘳。若跣不視地，厥足用傷。”은 淸華簡 <傳說之命>에 “若金，用惟汝作礪。……啓乃心，日沃朕心。若藥，如不瞑眩，越疾罔瘳。……若天旱，汝作淫雨。若津水，汝作舟。……若詆(抵)不視，用傷。”라고 되어 있다.

②《禮記·緇衣》에 인용된 “惟口起羞，惟甲冑起兵，惟衣裳在笥，惟幹戈省厥躬。”은 淸華簡 <傳說之命>에는 “且惟口起戎出好，惟幹戈作疾，惟衣藏(載)病，惟幹戈生(害)厥身。”라고 기록되어 있다. 관련해, 《墨子·尚同中》에 “是以先王之書<術令>之道曰：‘唯口出好興戎。’”라고 되어있는 바 孫詒讓은 《墨子問詁》에서 <術令>이 <說命>이라고 했다.

17) 李學勤(2012:8).

武丁이 傳說을 중용하면서 傳說에게 주는 경계의 말 命이고, 하편은 武丁이 傳說에게 국가의 대사를 맡기고 자신을 보필토록 하면서 傳說에게 내리는 경계의 말이다.

앞 절에서 淸華簡 <傳說之命>이 초기 《尙書·說命》의 진본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傳說之命>이 《尙書·說命》의 진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세 편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¹⁸⁾, 상편과 중, 하편의 내용이 다르며 상편의 내용이 '命'의 형식과 거리가 있다는 점¹⁹⁾, 일부 先秦 문헌에 인용된 <說命>의 문장이 <傳說之命>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²⁰⁾, 고전 문헌에 기록된 高宗과 관련된 諒陰, 得夢과 관련된 내용이 <傳說之命>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²¹⁾ 등에 따른

18) 관련한 李銳(2013)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傳說之命> 상편에서는 武丁의 신하가 武丁의 명으로 傅巖이라는 곳에서 노예 신분으로 노역을 하고 있던 傳說을 찾아낸 고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武丁과 傳說의 첫 만남이 傅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그 후 天帝의 명을 받은 傳說이 失仲을 정벌하고, 그 정벌을 통해 그의 圜土를 封地로 얻게 되었으며, 이후 圜土에서 殷으로 가 殷에서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傳說之命> 중편에는 “說이 傅巖으로부터 와서 은에 도착하였다”고 되어있어 설사 傅巖이 圜土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편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아래 주 32) 참고) 또 武丁은 傳說을 만난 후 자신의 꿈과 대조해 보고 나서 “說, 그대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천제의 명을 받들어서이니라.”라고 말해 武丁이 이전에 傳說과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 이 부분도 상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9) 관련한 趙平安(2013)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傳說之命> 상편에서는 주로 武丁이 說을 찾고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武丁과 說이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 說이 失仲을 정벌하는 상황, 說의 외모 특징, 說邑의 소재지 등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상 상편은 <說命>의 <序>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중, 하편에야 비로소 說에 대한 命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일 상편이 <序>라고 한다면 두 편 밖에 남지 않으니 淸華簡 <傳說之命> 한 편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 先秦 문헌에 인용된 <說命>의 문장이 淸華簡 <傳說之命>에는 나오지 않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禮記·文王世子》：“念終始典於學。”

《禮記·學記》：“念終始典於學。”

《禮記·學記》：“教學半。”敬孫務時敏，厥修乃來。”

《禮記·緇衣》：“爵無及惡德，民立而正事，純而祭祀，是爲不敬；事煩則亂，事神則難。”

21) 高宗 諒陰, 得夢과 관련된 고사는 淸華簡 <傳說之命>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음과 같은 고전 문헌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國語·楚語上》：“昔殷武丁能聳其德，至於神明，以入於河，自河徂亳，於是乎三年，默以思道。卿士患之，曰：‘王言以出命也，若不言，是無所稟命也。’武丁於是作書，曰：‘以餘正四方，餘恐德之不類，茲故不言。’如是而又使以象夢旁求四方之賢，得傳說以來，升以爲公，而使朝夕規諫。”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나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 <傳說之命> 출토의 가장 큰 의미는 清華簡 <傳說之命>이 실제 戰國시대에 필사된 문헌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說命>의 진본 문제 규명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보다는 상기 제기된 문제들을 통해 이들이 古文獻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의 先秦 이전 시기 문헌들은 형성과정이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尚書》의 경우에서 보듯이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하더라도 이에 앞서 원시 자료들이 오랜 시기에 걸쳐 미지의 형식으로 누적되고 보존, 전래된 경우가 많았다.²²⁾ 또한 이들 단편 문장들은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편이 추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복수의 판본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 과정의 복잡성은 책으로 묶여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짐작된다. <傳說之命>세 편도 그 저술 연대가 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²³⁾, 세 편이 일관되게 기술되지 못하거나 내용상의 불일치가 있는 점,

《周書·無逸》：“其在高宗，時舊勞於外，爰暨小人。作其即位，乃或亮陰，三年不言。其惟不言，言乃雍。不敢荒寧，嘉靖殷邦。至於小大，無時或怨。肆高宗之享國五十年有九年。”

《呂氏春秋·重言》：“高宗，天子也，即位諒暗，三年不言。卿大夫恐懼，患之。高宗乃言曰：‘以餘一人正四方，餘唯恐言之不類也，茲故不言。’”

《論語·憲問》：“子張曰：‘《書》云：高宗諒陰，三年不言，何謂也？’子曰：‘何必高宗，古之人皆然。君薨，百官總己以聽於塚宰，三年。’”

《禮記·檀弓》：“子張問曰：‘書云：高宗三年不言，言乃讞。有諸？’仲尼曰：‘胡爲其不然也，古者天子崩，王世子聽於塚宰三年。’”

《禮記·坊記》：“高宗云：‘三年其惟不言，言乃讞。’”

《禮記·喪服四制》：“書曰：高宗諒闇，三年不言。”

- 22) 관련해 謝維揚(201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말하는 《尚書》의 책으로의 성립 이전에 《尚書》의 주요 문장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미지의 형식으로 유전되고 이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尚書》내용 대부분의 원래 형태가 周왕실과 魯나라 같은 소수 諸侯國의 왕실에서 각급 사관들이 편찬하여 정리와 수정을 거쳐 보관된 官方의 역사 문헌 혹은 자료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는 商周 문헌에서 말한 소위 ‘典策’이다. 이런 자료는 商周를 거치면서 오랜 시기에 걸쳐 누적되고 보존되었다. 《左傳》昭公二年에 기록된 ‘觀《書》於大史氏’의 《書》가 바로 이런 문헌 자료일 것으로 추정된다. 《左傳》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官方의 역사 문헌 또는 자료가 이때 이미 《書》로 칭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원시의 《書》류는 마땅히 후대에 《尚書》로 편집된 각 편의 내용의 원형 또는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구체적 형식은 알 수 없다. 원시 《書》류의 자료는 오랜 시간 동안 官方의 文件 용도 외에도 미지의 형식으로 귀족들에 의해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3) 李學勤(2012:2)은 상편의 ‘失仲卜辭’의 占卜 형식이 殷墟卜辭와 일치하는 점을 들어 상편

그리고 형식에 있어 이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傳說之命>에 대해 이것이 초기 《尙書·說命》이었던지를 논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존 《尙書·說命》도 비록 그것이 僞書라 하더라도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과 우리 문화에 끼친 심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여전히 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4. 淸華簡 <傳說之命> 역주²⁴⁾

4.1 <傳說之命>上

惟殷王賜說于天[1], 甬(庸)[2]爲失仲使人[3]。王命厥百攻(工)向(像)[4], 以貨[5]旬(徇)[6]求說于邑人。惟攷(弼)人[7]得說于專(傳)巖。厥[8]卑(俾)[9]纏(繃)[10]弓紳[11]彈(關)[12]辟[13]矢[14]。說方築城, 滕[15]降(絳)[16]重(庸)力。[17]厥說之狀, 鵠(鳶)肩[18]如惟(椎)[19]。[20]王酒訊[21]說曰: “帝毆(抑)爾以畀[22]余, 毆(抑)非?”[23]說酒曰: “惟帝以余畀爾。爾左執朕袂, 爾右稽首。”[24]王曰: “旦(亶)[25]然。”天酒命說伐失仲。[26]失仲是生子, 生二戊(牡)豕。[27]失仲卜曰: “我其殺之, 我其已, 勿殺。勿殺是吉。失仲違卜, 乃殺一豕。說于[28]窳(韋)[29]伐失仲, 一豕乃觀(旋)[30]保以逝[31]。酒踐[32], 邑人皆從。[33]一豕隨(隨)[34]仲之自行, 是爲赤敦(俘)之

의 저술 연대가 상당히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淸華簡 <傳說之命> 중편에 언급된 “用惟多德”와 하편에 언급된 “經德配天”, “九德”, “三德”의 德이라는 개념은 周代에 형성된 것으로 중, 하편의 저술 연대가 상대적으로 늦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24) <傳說之命>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개별 글자의 해독이나 풀이에 많은 이견이 있고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주석은 張崇禮 교수의 <제97차 중국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2014.05.17) 발표문을 근거로 하였으며, 淸華大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이하 整理組라 함)와 일부 학자들의 견해 중 신빙성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戎[35]。其惟說邑，在北海之州，是惟員(圓)[36]土。說來，自從事于殷，王用[37]命說爲公。

【주석】

[1] 惟殷王賜說于天에서 于是 介詞로, ‘~에게’의 뜻이며, 天은 上天을 말한다.

[2] 整理組는 甬은 庸의 通假이며, 《荀子·解蔽》의 注를 예로 들어 ‘사역하다(役)’로 풀이하였다.

[3] 使人은 ‘사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4] 整理組는 向이 像의 通假이며, ‘화상(畫像)’의 뜻이라고 했다.

[5] 整理組는 《說文》을 인용하여 貨는 “재물”의 뜻이라고 했다.

[6] 整理組는 旬이 徇의 通假라고 했다. 子居는 ‘營, 求’로 풀이하여, ‘찾다, 구하다’의 뜻이며, 즉 《書·序》에 “高宗夢得說, 使百工營求諸野”라고 한 구절의 “營求”와 같은 의미라고 했다.

[7] 整理組는 攷이 弼의 通假이며, 弼人은 활을 제작하는 관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弼人은 百工 중의 하나로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을 가리키며, 당시 장인은 天子의 가신으로 일했다.

[8] 子居는 厥이 일반적 의미의 ‘其’라고 했다.

[9] 整理組는 倅가 俾의 通假라고 했는데, 子居는 俾를 ‘使’라고 풀이했다.

[10] 整理組는 纏을 繡이라고 하고, 《說文·糸部》의 ‘뭉다(束)’라는 의미라고 했다.

[11] 子居는 紳을 ‘뭉다(束)’로 풀이하였다.

[12] 整理組는 弣를 關의 通假로 보았지만, 이는 또 ‘聯’으로도 볼 수 있으며 ‘활을 쏘는 곳(施弓弦之處)’이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13] 子居는 辟을 ‘治’로 풀이하였다.

[14] 子居는 厥俾繡弓紳關辟矢를 ‘武丁이 射人을 시켜 활과 화살을 준비하도록 시켰고, 射人이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傳巖이라는 곳에서 傳說을 만났다’라

고 풀이하였는데,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射人’은 잘못된 해석이며 마땅히 ‘弼人’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 整理組는 滕을 《詩·魯頌·閟宮》傳의 ‘줄로 묶다(繩)’, 《廣雅·釋器》의 ‘묶다(索)’의 의미라고 했다.

[16] 降은 絳의 通假로, ‘질은 붉은색’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질은 붉은색의 수의(囚衣)를 말한다. 고대의 수의는 붉은 흙으로 물을 들여 질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자의(赭衣)라고도 한다. 《荀子·正論》에 “殺 赭衣而不純”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楊倞의 注에 “以赤土染衣, 故曰赭衣……殺之, 所以異於常人之服也. (붉은 흙으로 염색하여 자의라고 한다. ……사형수에게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눈에 띄는 남다른 옷을 입혔다.)”고 했다. 《史記·田叔列傳》에 “唯孟舒、田叔等十餘人赭衣自髡鉗, 稱王家奴, 隨趙王敖至長安。(孟舒, 田叔 등 십여 명은 붉은 색 수의를 입고 스스로 머리를 삭발하고 형틀에 갇힌 채 王家의 노예라고 칭하며 趙王 敖를 따라 長安이 도착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17] 滕絳庸力은 ‘서로 한데 묶여 한 줄로 늘어서서 수의를 입고 복역을 하고 있다.’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傳說이 ‘죄수(胥靡)’ 또는 ‘노예(奴隸)’ 신분이었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呂氏春秋·求人》에 “傳說, 殷之胥靡也.”는 구절이 있는데, 高誘의 注에서 “胥靡는 刑罪의 명칭”이라고 했다. 《漢書·楚元王劉交傳》에 “王戊稍淫暴……二人諫, 不聽, 胥靡之, 衣之赭衣, 使杵臼雅春於市.”라는 구절이 있는데, 顏師古는 注에서 “서로 함께 묶여 한 줄로 늘어서서 복역을 하기 때문에 胥靡라고 한다. 마치 지금의 죄수들이 줄에 묶여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18] 胡敕瑞는 鷲이 鳶의 通假이며, 鳶肩은 두 어깨가 위로 솟아 오른 모습을 말하며, 옛 문헌에서 흔히 사람의 특이한 외모를 묘사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했다.

[19] 整理組는 惟가 椎의 通假라고 했으며, ‘송곳 모양을 말한다고 했다.

[20] 虞萬리는 鳶肩如椎를 ‘傳說의 어깨가 마치 등지에서 날개를 접어 웅크

리고 있는 술개처럼 그 모양이 거꾸로 세워 놓은 송곳 같다'고 해석했다.

[21] 訊은 '묻다, 문의하다'의 뜻이다.

[22] 畀은 '보내주다(賜予)'의 뜻이다.

[23] 앞의 毆는 抑의 通假로, '내려 보내다(貶抑)'의 뜻이며, 두 번째 毆는 抑의 通假인데, 整理組는 이를 선택 접속사라고 풀이했다.

[24] 爾左執朕袂, 爾右稽首는 <傳說之命> 중편의 “王原比厥夢, 曰: ‘汝來惟帝命. 說曰: ‘允若寺(時)’”와 연계된 내용으로, 天帝가 傳說을 武丁에게 보내 줄 때의 상황, 즉 꿈속에서의 상황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武丁은 “과연 그러하도다.”라고 말했다.

[25] 整理組는 《爾雅·釋詁》를 인용하여 亶이 '믿을 만하다(信)', '실로 그러하다(誠)'의 뜻이라고 했다.

[26] 天은 上天을 말하며, 곧 帝다. 上天은 傳說을 武丁에게 보냈으며, 또 傳說에게 명을 내려 失仲을 토벌하도록 했다.

[27] 是는 강조의 어기사다.

[28] 整理組는 于가 <周南·桃夭> 傳의 '가다(往)'의 뜻이라고 했다.

[29] 單育辰은 韋가 韋의 通假로 생각되며, 이는 豕韋氏의 소제지 '韋'를 말하고, 失仲氏가 두 명의 牡豕를 낳은 기록과 연계해보면 여기서의 失仲氏는 아마도 문헌에 기록된 豕韋氏인 것 같다고 했다.

[30] 整理組는 觀이 旋의 通假라고 했는데, 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副詞 '즉시'의 뜻이다.

[31] 整理組는 逝가 《廣雅·訓詁一》의 '가다(行)'의 뜻이라고 했다.

[32] 整理組는 踐과 翦이 통하며, '정벌하여 멸하다(伐滅)'의 뜻이라고 했다.

[33] 泗踐, 邑人皆從은 '傳說이 그리하여 失仲을 토벌하였고, 失仲의 封地 사람들이 모두 傳說에게 귀순했다'의 뜻이다.

[34] 整理組는 隍가 隨의 通假라고 했다.

[35] 暮四郎(인터넷 필명)은 赤敦(俘)之戎은 戎狄의 일종이라고 했다.

[36] 整理組는 員이 圓의 通假이며, 《墨子·尙賢下》를 인용하여 “昔者傳說

居北海之洲，圜土之上(옛날에 부열이 北海의 섬, 圜土 땅에 살았다)”고 했다.

[37] 用은 접속사로, ‘그래서, 따라서’의 뜻이다.

【번역】

上天이 은왕 武丁에게 說을 내려 보내주었는데, 說은 그때 노예 신분으로 失仲을 위해 노역을 하고 있었다. 은왕 무정은 百官에 명하여 그의 화상을 듣고 재물 보화를 가지고 邑人²⁵⁾ 가운데서 說을 찾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弼人이 傅巖이라는 곳에서 說을 찾았다. 그 弼人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곳에 파견되었는데, 그곳에서 說을 발견하였다. 說은 그때 마침 성벽을 쌓는 일²⁶⁾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죄수들과 함께 줄에 묶여 짙은 붉은색의 죄수 복장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다. 說의 모습은 솔개가 등지에서 날개를 접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어깨가 솟아있었고, 송곳 모양으로 상체가 넓고 하체가 좁은 역삼각형의 체형이었다. 그래서 은왕 무정이 說에게 “天帝²⁷⁾께서 내리시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 바로 그대가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에 說이 “天帝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왼쪽으로 나의 옷소매를 잡고 오른쪽으로 上天께 머리를 조아려 절을 했습니다.²⁸⁾”라고 말했다. 이에 왕이 “과연 그러하도다!”라고 하였다. 天帝가 그리하여 說에게 명을 내려 失仲을 도벌하도록 하였다. 失仲은 그때 마침 수태지처럼 생긴 아들을 둘 낳았다.²⁹⁾ 失仲은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것이 길습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 길습니까?”하고 점을 쳐 물었다.

25) 國人은 도시에 거주하는 백성을 말하고, 邑人은 도시 밖 마을에 거주하는 백성을 말한다.

26) 성벽은 우선 내벽과 외벽을 세우고 그 사이를 흙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는데,築은 본래 흙을 다져 메꿀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키며, 후에 ‘성벽을 쌓다’의 의미로 쓰였다.

27) 天과 帝는 초기에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天은 자연의 하늘, 帝는 신령을 가리켰다. 은대 후기에 와서 天과 帝는 天帝라는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天과 帝가 모두 天帝의 의미로 쓰였다.

28) 稽首는 예를 표하는 동작으로, 꿇어앉아 두 손을 땅에 대고 손 위에 머리를 닿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표하는 다른 동작으로 拜는 꿇어앉아 두 손을 가슴 앞쪽에 모아 쥐고 머리를 숙이는 것을 말하며, 頓首는 꿇어앉아 머리를 땅에 짓찧는 동작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사죄할 때 하는 것이다. 稽首는 가장 공손한 예를 갖추었음을 말한다.

29) 失仲이 수태지(牡豕) 두 마리를 낳았다는 황당한 이야기는 상편의 저술 연대가 상당히 이를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죽이지 않는 것이 길하다는 점괘가 나왔지만, 失仲은 점괘를 어기고 그 중 아들 한 명을 죽였다. (그 무렵) 說이 후에 당도하여 失仲을 토벌하였으며, 살아 남은 아들 한 명이 재빠르게 失仲을 보위하여 달아나버렸다. 그리하여 說이 그 지역을 공략하여 정복하였고, 邑인들이 모두 복속되어 說을 따랐다. 失仲과 그 아들은 함께 달아나 후에 赤俘의 땅에 들어가 戎人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이 說의 땅이 되었으며, 北海 지역에 있는 園土가 바로 이곳이다.³⁰⁾ 그 후 說은 殷으로 와서 殷을 섬기게 되었고, 은왕 무정은 說을 公으로 임명하였다.³¹⁾

4.2 <傳說之命>中

說來自傳巖，在殷。武丁朝〔1〕于門，內〔納〕〔2〕在宗。王原〔3〕比厥夢，曰：“汝來惟帝命。”說曰：“允若寺〔時〕〔4〕。”武丁曰：“來格〔5〕汝說，聖〔聽〕戒朕言，滌〔慎〕〔6〕之於乃心。若金，用惟汝作礪。故我先王滅夏，變〔7〕鄴〔疆〕〔8〕，捷〔9〕蠢邦〔10〕，惟庶相〔11〕之力勝，用孚自邇。〔12〕敬之哉，啓乃心，日沃朕心。〔13〕若藥，如不覲〔暝〕均〔眩〕，越〔14〕疾罔瘳。朕畜汝，惟乃鬻〔腹〕〔15〕，非乃身。若天旱，汝作淫雨。若鬪〔滿〕〔16〕水，汝作舟。汝惟〔17〕哉，說，砥〔18〕之於乃心。且天出不恙〔祥〕，不虞〔徂〕〔19〕遠，在厥路〔20〕。汝克覲〔覲〕〔21〕視四方，乃〔22〕俯視地。〔23〕心毀〔24〕惟備〔25〕。〔26〕敬之哉，用惟多〔27〕德。〔28〕且惟口起戎出好，惟干戈作疾，惟哀〔哀〕〔29〕載〔載〕〔30〕病，惟干戈生〔眚〕〔31〕厥身。若詆〔抵〕〔32〕不視，用傷，吉不吉。余告汝若寺〔時〕，齎〔志〕〔33〕之於乃心。”

【주석】

〔1〕 朝는 ‘오게 하여 알현을 받다’의 뜻이다.

30) 北海之州는 지금의 발해만 부근 반도 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

31) 여기서는 노예 신분이었던 부열이 곧바로 지위가 높은 公이 될 수 없었고, 먼저 失仲을 토벌하고 그 공으로 제후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公으로 임명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2] 內는 納의 通假이며, ‘들이다, 들어오게 하다’의 뜻이다.

[3] 原은 ‘고찰하다, 연구하다, 깊이 생각하다’의 뜻이다.

[4] 整理組는 若寺가 若時的 通假이며, ‘이와 같다’의 뜻이라고 했다.

[5] 格은 ‘이르다(至)’의 뜻이다.

[6] 黃傑은 滲이 愼의 通假라고 했다.

[7] 廖名春은 變은 《詩·大雅·大明》에 “變伐大商”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毛傳>에 “變은 화합하다(和)의 뜻”이라고 했다.

[8] 彊은 疆이며, ‘변경, 강토’의 뜻이다. 變疆은 ‘변경을 안정시키고 화합시키다’의 뜻이다. 疆은 ‘변경의 성읍(城邑)’을 말하기도 하는데, 《國語·晉語》에 “蒲與二屈, 君之疆也.” 구절에서 疆(彊)은 자형이 邑을 따르고 있다.

[9] 整理組는 捷이 ‘전쟁에서 승리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10] 整理組는 蠢邦이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를 말하며, <小雅·采芣>에 “蠢爾蠻荆”의 <傳>에 “蠢은 동요하다(動)”의 뜻이라고 했다.

[11] 整理組는 相이 《周禮·大僕》의 注에 ‘좌우 신하’라고 했으며, 庶相은 곧 ‘좌우 여러 신하’를 말한다고 했다.

[12] 紫竹道人은 “用孚自邇”은 “惟庶相之力勝”에 이어서 말한 것으로 用은 ‘그래서’ 또는 ‘따라서’의 뜻이며, 孚는 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孚에 ‘믿다’의 의미가 있어서 천하를 안정시키자 천하가 비로소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래서 “惟庶相之力勝, 用孚自邇”는 ‘여러 신하들의 힘을 빌어 승리를 얻었으며, 그리하여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안정과 믿음을 얻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13] 《書·說命上》 “啓乃心, 沃朕心”라는 구절의 孔穎達 <疏>에서 ‘마땅히 너의 마음을 열어 나의 마음을 비옥하게 하라’의 뜻이라고 했다.

[14] 整理組는 越은 문두조사로, 《書·盤庚》과 <高宗彤日>, <微子>, <大誥>, <召誥> 등에도 나오며, <楚語上>에서는 “若藥不暝眩, 厥疾不瘳”라고 하여, 越을 厥로 썼다고 했다.

[15] 整理組는 脘은 腹의 通假로 腹心을 말하며, <周南·兔置>에 “公侯腹

心”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했다.

[16] 孫合肥은 闕은 滿이며, 물이 ‘넘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17] 黃傑은 惟의 뜻이 ‘생각하다, 고려하다’라고 했다.

[18] 整理組는 砥가 底의 通假로, 《爾雅·釋詁》의 ‘그치다(止)’의 뜻이라고 했다.

[19] 整理組는 虜는 徂의 通假로, ‘이르다(及)’의 뜻이라고 했다.

[20] 子居는 胍이 여기서 원 글자대로 ‘거드랑이’의 뜻이라고 했다.

[21] 黃傑은 暘이 宣의 通假라고 했다. 宣은 ‘천지사방 두루두루(遍)’를 말한다.

[22] 乃是 부사로, ‘다만, 겨우’의 뜻이다. 《呂氏春秋·義賞》에 “天下勝者衆矣! 而霸者乃五”라는 구절의 高誘의 注에서 “乃是 단지(裁)와 같다”고 했다.

[23] “汝克宣視四方, 乃俯視地”는 ‘그대가 능히 천지 사방을 두루두루 잘 살필 수 있지만 그대는 오로지 몸을 굽혀 땅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傅說에게 겸허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이르는 경계의 말이다.

[24] 毀는 ‘훼손시키다, 손상시키다’의 뜻이다.

[25] 備는 ‘만족하다’의 뜻이다. 《國語·楚語上》에 “是以其入也, 四封不備一同”라는 구절의 韋昭 <注>에 “備는 만족하다(滿)의 뜻”이라고 했다.

[26] 心毀惟備는 《尙書·大禹謨》에서 말한 “滿招損(만족하는 마음이 손해를 부른다)”를 말한다.

[27] 多是 ‘크다(大), 성하다(盛)’의 뜻이다. 《呂氏春秋·知度》에 “其患又將反以自多”라는 구절의 高誘 <注>에서 “多是 크다(大)의 뜻”이라고 했다. 또한 侈의 通假로도 볼 수 있는데, 《集韻·紙韻》에 “侈는 크다(大)의 뜻”이라고 했다. 《國語·吳語》 “伯父秉德已侈大哉”라는 구절의 韋昭 <注>에서 “侈는 넓다(廣)와 같은 뜻”이라고 했다.

[28] 用惟多德는 곧 惟多德用의 의미로, 傅說에게 오로지 크나큰 덕으로써 스스로 힘쓰라고 경계하여 이르는 말이다. 清華簡 <皇門>8簡에 “惟兪(媮)德用, 以昏求于王臣”이라는 구절의 兪(媮)德은 형용사 兪(媮)가 德을 수식하여

‘타락한 德’이라는 뜻인데, 多德도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

[29] 黃傑은 衰가 哀의 通假로, 惟哀載病은 ‘비에와 슬픔이 疾病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30] 整理組는 載가 載의 通假로, 《小爾雅·廣詁》의 “이루다(成)”의 뜻이라고 했다.

[31] 整理組는 生이 甞의 通假로, 《國語·楚語下》注의 “재앙과 같다(猶災)”고 한 뜻이라고 했다.

[32] 整理組는 詆가 抵의 通假로, 《說文》의 “배척하다(擠)”의 뜻이며, 즉 ‘손으로 밀어내다’의 뜻이라고 했다.

[33] 整理組는 疇가 志의 通假로, 《國語·魯語下》注의 “志는 알다(識)”의 뜻이라고 했다.

【번역】

說이 傳巖으로부터 와서 殷에 도착하였다. 왕 武丁이 종묘사당의 문에서 그를 맞아 종묘사당으로 그를 들였다.³²⁾ 왕 무정이 그 꿈을 대조하여 맞추며 말하기를 “說, 그대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천제의 명을 받들어서이니라.”라고 하였고, 說이 “바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왕 武丁이 말하기를 “說, 그대가 여기에 왔으니, 짐의 말을 잘 듣고 경계로 삼아 그대의 마음속에 새겨 늘 그것을 신중히 여길지어다. 만약 (군주가) 쇠(금속으로 만든 무기)라면 그대를 쇠를 가는 숫돌로 삼을 것이다. 옛날 나의 선왕께서 夏나라를 멸하였고, 변경지역을 화합하였으며, 복종하지 않는 나라(邦國)들을 정벌하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 대신들의 도움 덕분으로 이로써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점차적으로 믿음과 신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모름지기 신중하고 근신하여라. 그대의 마음을 열어 날마다 짐의 마음을 비옥하게 할지어다. 만약 약을 먹어서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暝

32) 임금이 신하를 맞이함에 있어 종묘에 들이는 것으로 예를 갖추었다. 대신을 임명할 때도 종묘에서 거행하였다.

眩 현상이 없으면 병이 치유되지 않을 것이니라. 짐이 그대를 거두어 임용한 목적은 오로지 그대의 마음에 있으며, 그대의 몸에 있지 않으니, 그대는 전심 전력을 다해 나를 도울지어다. 만약 날이 가물면 나는 그대를 霖雨³³⁾로 삼을 것이며, 만약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나는 그대를 배로 삼을 것이다. 그대는 잘 생각해보아라. 說, 그대는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라.³⁴⁾ 上天이 상서롭지 못한 징조를 내려서 징벌하고자 할 때, 그 원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시 그대에게 있을 것이니라. 그대는 능히 사방을 두루 잘 살필 능력이 있지만, 반드시 겸허하게 땅 아래를 굽어볼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은 오로지 만족하는 것에서 손상을 입게 되어 있다. 신중한 마음으로 근신하여라. 오로지 크나큰 덕³⁵⁾으로써 스스로 힘써라. 또한 단지 입 하나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입 하나로 인해서 화합이 이루어지기도 하니, 늘 입을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³⁶⁾ 전쟁은 질환을 일으키고, 비애와 슬픔은 병을 일으키니, 전쟁은 결국 몸을 훼손시키게 된다. 만약 배척하여 밀어내고 세심히 살피지 못하면 상해를 입게 될 것이고, 길한 것도 중국에는 길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그대에게 알려주니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여라.”라고 했다.

4.3 <傳說之命>下

……員，經德配天，余罔有罍(甿)[1]言。小臣罔(俊)[2]在朕備(服)[3]，余惟命汝說融[4]朕命。余(頤)(柔)遠能逐(邇)[5]，以益視事，弼[6]永(延)[7]，作[8]余一人。”王曰：“說，眾[9]亦[10](詣)[11]乃備(服)，勿易[12]卑

33) 삼일 이상 계속 내리는 비를 霖雨라고 한다.

34) 여기까지는 부열에게 왕 자신이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옆에서 잘 보필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은 부열 스스로가 자신을 잘 경계하라는 내용이다.

35) 德이라는 개념은 周代에 형성된 것으로 중, 하편의 저술 연대가 상대적으로 늦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36) 郭梨華(2013)는 清華簡 <傳說之命>이 <盤庚>의 ‘말을 신중히 하라’는 殷商시기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俾)越[13]。如飛鶴(雀)罔畏觀(羅)[14]，不惟鷹唯(隼)，迺弗虞民[15]，厥其禍亦羅[16]于羣眾[17]。”王曰：“說，汝毋瘖(忘)[18]曰：‘余克享[19]于朕辟。’其又迺[20]司四方民不(丕)克明，汝惟有萬壽在乃政。汝亦惟克顯天，迺(桐)[21]眾(瘵)[22]小民[23]，中[24]乃罰，汝亦惟有萬福業業[25]在乃備(服)。”王曰：“說，晝如視日，夜如視晨(辰)，寺(時)罔非乃載[26]。敬之哉。若賈，汝毋非貨如戠(戠)[27]石。”王曰：“說，余既諛(誤)[28]故(劫)詘(愆)[29]汝，思(使)若玉冰，上下罔不我義(儀)[30]。”王曰：“說，昔在大戊，克滸(慎)五祀，天章之用九德，弗易百姓。惟時大戊盍(蓋)[31]曰：‘余不克辟萬民。余罔紘(墜)[32]天休，弋(式)[33]惟三德賜我，吾乃專(敷)[34]之于百姓。余惟弗迭(雍)[35]天之段(緜)命。”王曰：“說，毋蜀(獨)乃心，專(敷)之于朕政，欲汝其有友[36]耆(勑)[37]朕命哉[38]。”

【주석】

- [1] 罔은 殫의 通假로, 《說文·歹部》에 “실패하다(敗)의 뜻”이라고 했다.
- [2] 整理組는 夤이 俊 혹은 駿의 通假로 보이며, 《爾雅·釋詁》의 “駿은 우수하다(長)”의 뜻이라고 했다.
- [3] 整理組는 朕服이 ‘왕실 조정의 직무’를 말하는데, 《書·文侯之命》에는 “罔或者壽俊在厥服”라고 되어있다고 했다.
- [4] 融은 ‘통하다(通)’의 뜻이며, 《文選·何晏景福殿賦》에 “雲行雨施, 品物咸融”이라는 구절의 李善 注에서 “融은 통하다(通)의 뜻”이라고 했다.
- [5] 整理組는 逐이 邇의 通假로, 柔遠能邇라는 말은 《書·舜典》과 大克鼎 등 西周 金文에 보인다고 했다.
- [6] 整理組는 弼은 《說文》의 “보좌하다(輔)”의 뜻이라고 했다.
- [7] 整理組는 永延은 ‘왕의 복록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 [8] 黃傑은 作을 助의 通假로 보았다.
- [9] 眾은 及으로 풀이해야 하며, ‘~할 때’의 뜻이다.
- [10] 亦은 ‘또한(也)’의 뜻이다.

[11] 整理組는 𨔵를 詣로 풀이했으며, 《漢書·楊王孫傳》注의 “이르다(至)”의 뜻이라고 했다.

[12] 黃傑은 易을 ‘가볍고 오만 불손하다(輕慢)’의 의미로 풀이하었다.

[13] 整理組는 越은 《書·盤庚》孔<傳>의 “떨어지다(墜)”의 뜻으로, 여기서 ‘잃어버리다, 실추시키다(失墜)’의 의미라고 했다.

[14] 黃傑은 覩는 羅의 通假로, ‘그물’을 가리킨다고 했다.

[15] 虞民은 ‘백성을 잘 대비하다’의 뜻이다.

[16] 黃傑은 羅가 罹의 通假라고 했다.

[17] 整理組는 罾가 ‘새를 잡는 그물’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罾가 구체적으로 어떤 글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이 ‘새를 잡는 그물’이라는 견해는 믿을만하다.

[18] 整理組는 瘿이 忘의 通假라고 풀이했다.

[19] 享은 ‘當’의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 《小爾雅·廣言》에 “享은 當(받다, 응하다)의 뜻”이라고 했고, 《尚書·咸有一德》에 “克享天心, 受天明命”이라는 구절의 孔<傳>에 “享은 當(받다, 응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20] 整理組는 又迺는 又乃이며, ‘또한 게다가(又且)’의 뜻이라고 했다.

[21] 整理組는 《書·康誥》에 “桐瘵乃身”라는 구절의 桐은 《爾雅·釋言》에 “아프다(痛)의 뜻”이라고 했다

[22] 整理組는 瘵은 鰥과 통하며 《爾雅·釋詁》에 “병(病)의 뜻”이라고 했다.

[23] 桐瘵小民은 ‘일반 백성의 고충을 헤아리다’의 뜻이다.

[24] 整理組는 中을 ‘공정하다(公正)’라고 풀이했다.

[25] 整理組는 業業을 간혹 藹의 通假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說文》에 “臣盡力之美……《詩》曰藹藹王多起士”라는 구절의 藹藹는 ‘매우 무성한 모양(盛多貌)’이라는 뜻이다.

[26] 載는 識으로 풀이해야 한다. 《詩·大雅·大明》에 “文王初載, 天作之合”라는 구절의 孔<傳>에 “載는 알다(識)의 뜻”이라고 했다.

[27] 整理組는 猷이 墾의 通假로, 墾은 또 埴으로도 쓰며, 《淮南子·齊俗》注에서의 “진흙(泥)”의 뜻이라고 했다.

[28] 整理組는 諛는 諛의 通假로, 《禮記·大學》注에서의 “바르다(正)”의 뜻이라고 했다.

[29] 整理組는 故 祕은 곧 劫 愆이며, 《書·酒誥》에 “汝劫愆殷獻臣”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같은 편 “厥誥愆庶邦庶士”의 구절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경계 하도록 훈계하다’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30] 黃傑은 儀가 ‘본받다(效法)’의 뜻이라고 했다.

[31] 盍는 蓋의 通假로, ‘이에’, ‘그래서’의 뜻이다.

[32] 整理組는 紕은 墜의 通假로, ‘잃다(失)’의 뜻이라고 했다.

[33] 整理組는 弋이 式의 通假로, ‘이에(乃)’의 뜻이라고 했다.

[34] 整理組는 專가 敷의 通假로, 문헌에서 ‘배포하다(布)’의 의미와 통한다고 했다.

[35] 整理組는 詰은 雍의 通假로, 《逸周書·大戒》注에서의 “막혀 행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言閉塞不行也)”의 뜻이라고 했다.

[36] 友는 ‘순종하다(順從)’의 의미로, 《書·洪範》에 “平康正直, 彊弗友剛克”라는 구절의 孔<傳>에 “友는 순종하다(順)의 뜻”이다.

[37] 整理組는 勅가 勅의 通假라고 했는데, 이는 ‘순종하다(順從)’의 뜻이다. 《廣雅·釋詁一》에 “勅은 순종하다(順)의 뜻”이라 했다고 했다.

[38] 友와 勅는 모두 ‘순종하다(順)’의 뜻으로, 友勅朕命은 곧 ‘짐의 명을 따르라’는 뜻이다.

【번역】

.....나는 덕을 잘 수행하여 상천(上天)의 요구에 부응하였고, 법도에 맞지 않는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나의 가까운 신하³⁷⁾ 중에는 국가의

37) 小臣은 상나라 때 신하의 지위 고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天子의 家臣, 즉 가까운 신하를 가리켰다.

대사를 감당할만한 출중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 오로지 說 그대에게 짐의 명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명하노라. 먼 곳은 회유하고, 가까운 곳은 잘 다스리는 천하 통치의 내 일을 잘 보필할지이다. 그래서 이 일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짐³⁸⁾을 도울지이다.” 왕이 말하기를 “說, 그대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또한 오만과 불손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하늘을) 나는 참새가 그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독수리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방비하지 않으면, 결국 화는 그물에서 생기게 될 것이다. 백성들을 잘 방비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화는 그물에서 생기게 된다.”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說, 그대는 잊지 말라. ‘나는 능히 천자의 신임을 받는 자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래서 능히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림에 매우 청명할 수 있어야만 그대의 정치가 오래도록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또한 능히 天帝의 뜻을 밝히고,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그대가 내리는 형벌이 백성들에게 정당하고 여겨지며, 그대는 업무를 수행함에 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說, 낮에 태양을 바라보고, 밤에 별을 보면 시간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일을 함에 있어 기준을 분명해야 규칙이 있어야 한다. 신중하고 근신하여라. 만약 장사를 한다면 고귀한 금과 옥을 진흙과 돌덩이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說, 내가 이미 그대를 잘 교화하여 옥과 얼음처럼 고결하고 순결하게 하였으니, 그대가 상하 관리와 백성 모두 나를 본받지 않는 자 없도록 하여라.”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說, 옛날에 大戊 임금이 능히 五祀를 신중히 받들었는데, 上天은 九德으로 大戊 임금을 표창하였으며, 백성들이 大戊 임금³⁹⁾을 따르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大戊 임금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萬民의 군주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38) 余一人은 天子가 자신을 일컬을 때 쓰던 말이다.

39) 大戊는 太戊라고도 한다. 姓은 子이고, 名은 密이며, 生졸연대 미상이다. 商나라나라의 6대왕으로 5대왕 小甲의 아우이다. 일설에는 雍己의 아우로 雍己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甲骨文 周祭卜辭에 따르면 雍己는 大戊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雍己가 大戊의 아우일 것으로 추정된다. 《書無逸》와 《太平御覽》에서 《史記》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太戊는 在位 기간이 七十五年(前1535年—前1460年)이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太戊는 在位 시기에 賢人 伊陟을 제상으로 등용하여 천하가 크게 태평성대를 누렸고 제후가 모두 복속되었다고 한다.

나는 다만 上天이 나와 우리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보호를 잃지 않았을 뿐이며, 나에게 주신 三德을 백성들에게 베풀었을 뿐이다. 나는 上天이 나에게 기탁한 大命을 저버리지 않고 잘 베풀어 실행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說, 그대는 독단과 독재의 마음을 없애라. 그리고 나의 정치이념을 시행하고, 나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여라.”라고 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清華簡의 발견 경위와 1~4차 연구 성과 발표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한 후, 현존 僞古文《尚書·說命》편의 진본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清華簡 <傳說之命>에 대해 그 내용과 古文獻 연구의 시사점을 논하고 清華簡 <傳說之命> 상, 중, 하 3편에 주석을 달고 畧文을 번역하였다.

이번 <傳說之命> 출토의 가장 큰 의미는 清華簡 <傳說之命>이 실제 戰國 시대에 유전되던 문헌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이의 <說命> 진본 문제 규명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보다는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을 통해 이들이 古文獻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清華簡 <傳說之命>이 세상에 나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학자들이 이의 주해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별 글자의 해독이나 풀이에 여러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석에 있어 이들 여러 견해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으며, 필자들의 판단을 근간으로 整理組와 일부 학자들의 견해 중 신빙성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별해 인용한 바 주해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清華簡의 다른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傳說之命>은 앞으로 경서, 문자학,

역사, 사상사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尙書》가 중국과 우리 문화에 끼친 심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국내 학계의 많은 관심과 다방면에서의 연구가 기대된다. 이러한 작업에 부족하나마 본 역해가 하나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

-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上海: 中西書局, 2010.
-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貳)》, 上海: 中西書局, 2011.
-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參)》, 上海: 中西書局, 2012.
- 陳民鎮, <清華簡<說命上>首句試解>, 上海: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3.1.21.
- 陳民鎮, <清華簡<說命上>的“陀+土”>, 上海: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論壇, 2013.1.23.
- 程 薇, <清華簡<說命上>筭記(二則)>, 《出土文獻》(第4輯),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編, 李學勤主編, 上海: 中西書局, 2013.12.
- 程 薇, <由<傳說之命>反思偽古文《尙書·說命》篇>, 《中國社會科學報》, 2014.2.26.
- 杜 勇, <從清華簡<說命>看古書的反思>, 《出土文獻與中國古代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3.6.17.
- 杜 勇, <《古文尙書·說命》真偽與傳說身份辨析>, 《天津師範大學學報》206, 2009:5.
- 付 強, <從賓組卜辭看清華簡<說命>的用詞>, 濟南: 簡帛研究網, 2013.1.8.
- 付 強, <從賓組卜辭看清華簡<說命>的用詞續考>, 北京: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3.5.9.
- 侯乃峰, <讀清華簡(參)>說命>勝錄>, 武漢: 武漢大學簡帛網, 2013.1.16.
- 胡敕瑞, <讀《清華大學藏戰國竹簡(參)》筭記之一>, 北京: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3.1.5.
- 郭梨華, <清華簡<說命>初探>, 《達慕思-清華“清華簡”國際學術研討會—第四屆新出簡帛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3.8.29.
- 谷中信一(孫佩霞譯), <清華簡<傳說之命>探析>, 《達慕思-清華“清華簡”國際學術研討會—第四屆新出簡帛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3.8.29.

- 黃傑,〈讀清華簡(參)〈說命〉筆記〉,武漢:武漢大學簡帛網,2013.1.9.
- 金城未來,〈清華簡〈說命〉的文獻特質—以天的思想爲中心〉,《簡帛文獻與古代史學術研討會暨第二屆出土文獻青年學者論壇會議論文集》,2013.10.19.
- 李銳,〈讀清華簡3筭記(一)〉,北京:清華大學簡帛研究網,2013.1.4.
- 李銳,〈讀清華簡3筭記(二)〉,北京:清華大學簡帛研究網,2013.1.6.
- 李銳,〈讀清華簡3筭記(三)〉,北京:清華大學簡帛研究網,2013.1.14.
- 李銳,〈清華簡〈傳說之命〉研究〉,《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3:6.
- 李學勤,〈清華簡與《尚書》、《逸周書》的研究〉,《史學史研究》,2011:2.
- 李學勤,〈論清華簡〈說命〉中的卜辭〉,《華夏論壇》,2012:2.
- 李學勤,〈新整理清華簡六種概述〉,《文物》,2012:8.
- 李學勤,〈試論楚簡中的〈說命〉佚文〉,《烟台大學學報》,2008:2.
- 廖名春,〈清華簡與《尚書》研究〉,《文史哲》,2010:6.
- 廖名春,〈清華簡〈傳說之命上〉新讀〉,北京:清華大學簡帛研究網,2013.1.4.
- 廖名春,〈清華簡〈傳說之命中〉新讀〉,北京:清華大學簡帛研究網,2013.1.5.
- 廖名春,〈清華簡〈說命(上)〉初探〉,《出土文獻與中國古代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2013.6.
- 廖名春,趙品,〈清華簡〈說命上〉考釋〉,《史學史研究》,2013:2.
- 呂廟軍,〈清華簡〈說命上〉篇失仲探微〉,《出土文獻與中國古代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2013.6.17.
- 馬楠,〈清華簡·說命補釋三則〉,北京: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2013.4.7.
- 網友暮四郎,〈初讀清華簡三筆記(草稿)〉,武漢:簡帛論壇,2013.1.5.
- 彭裕商,〈清華簡〈說命〉與《禮記·緇衣》〉,《出土文獻》(第四輯),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編,李學勤主編,上海:中西書局,2013.12.
- 單周堯,〈讀清華簡〈說命上〉小識(二)〉,《浸會大學清華簡與詩經學論文集》,2013.11.
- 孫合肥,〈讀《清華大學藏戰國竹簡(參)》筭記〉,武漢:武漢大學簡帛網,2013.1.9.
- 王寧,〈讀清華三〈說命〉散筭〉,武漢:武漢大學簡帛網,2013.1.8.
- 王志平,〈清華簡〈說命〉中的幾個地名〉,北京: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2013.12.
- 謝維揚,〈由清華簡〈說命〉三篇論古書成書與文本形成二三事〉,《出土文獻與中國古代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2013.6.17.
- 徐俊剛,〈釋清華簡〈說命中〉的“本”字〉,上海: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2013.3.29.

- 楊 坤, <跋清華竹書<傳說之命>, 武漢: 武漢大學簡帛網, 2013.2.10.
- 楊 坤, <再跋清華竹書<傳說之命>, 武漢: 武漢大學簡帛網, 2013.2.26.
- 楊蒙生, <清華簡<說命上>校補>, 北京: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3.1.7.
- 楊善群, <清華簡<說命>考論>, 《淮陰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1.
- 虞萬里, <清華簡<說命>“鵠肩女惟”疏解>, 《出土文獻與中國古代文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3.6.17.
- (網友)魚游春水, <清華簡三<說命>初讀>, 武漢: 簡帛論壇, 2013.1.5.
- 張富海, <讀清華簡<說命>小識>, 《簡帛文獻與古代史學術研討會暨第二屆出土文獻青年學者論壇會議論文集》, 2013.10.19.
- 張 卉, <清華簡<說命上>“說於室 伐失仲”考>, 上海: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3.12.28.
- 趙平安, <試析清華簡<說命>的結構>, 北京: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3.5.7.
- 趙平安, <清華簡<說命>“變弼”考>, 北京: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3.5.16.
- 子 居, <清華簡<傳說之命>上篇解析>, 北京: 清華大學簡帛研究網, 2013.1.6.
- 子 居, <清華簡<傳說之命>中篇解析>, 北京: 清華大學簡帛研究網, 2013.4.3.
- 子 居, <清華簡<傳說之命>下篇解析>, 濟南: 簡帛研究網, 2013.7.4.
- (網友)紫竹道人, <清華簡<說命中>“用孚自邇”臆解>, 上海: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論壇, 2013.5.17.
- 宗靜航, <<尚書·說命>臆說>, 北京: 清華大學簡帛研究網, 2013.4.3.
- 清華大學新聞網, 《清華大學藏戰國竹簡》成果發布會(壹): 2011.1.5, (貳): 2012.2.24, (參): 2013.1.7, (肆): 2014.1.8.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書經》, 서울: 명문당, 2012.
- 서주영, 《<<尚書>今古文論爭史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성시훈, <清華簡「尹誥」의 내용과 사상적 의미에 관한 고찰>, 《유교문화연구》 20, 2012.
- 제해성, <逸周書의 문학 가치에 대하여 - 胡念貽의 逸周書中的三篇小說에 대한 천견(淺見)>, 《중국어문학》 제34집, 1999.
- 최남규, <《清華大學藏戰國竹簡》의 「尹誥」와 문자 연구>, 《중국어문학》 60, 2012.

< 中文提要 >

清華簡<傳說之命>三篇推斷為已經失傳兩千多年的古代文獻中所提到的<說命>三篇。<傳說之命>的內容和東晉出現的偽古文《尚書·說命》完全不同，因此其在經學、古代歷史學、思想史、文字學等各個領域都具有重大意義。以李學勤先生為首的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的整理者對這三篇竹書作了釋文和注釋，資料公布后，又有眾多學者發表研究文章。本論文在此基礎上對簡文內容做了進一步的解釋和翻譯。

關鍵詞：清華簡，<傳說之命>，《尚書·說命》，偽古文尚書，戰國竹簡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9. 30.	2014. 10. 20.	2014. 11. 7.	2014. 11. 18.	2014. 11. 30.